

지역 소식 통

정읍시, 소상공인 위해
카드수수료 지원

정읍시가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 30만원 까지 카드수수료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전년도 카드 매출액을 포함한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5% 범위 내에서 최대 30만원 까지 지급한다. 경영비용 부담 이 큰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공고일 이전 휴·폐업했거나 타 시·군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유휴업소·도박 등 신용보증재단의 제한업종·정책자금 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4월 14일부터 5월 9일 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금은 자격요건 검증을 거쳐 오는 7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누에타운, 군민 문화
향유 위해 순회 전시 진행

부안누에타운은 오는 5월 27일까지 지역 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한 기획 전시 작품들을 부안역사박물관과 부안복합커뮤니티센터 등 2개소에 순회 전시한다.

이번 순회 전시는 부안의 의병 이야기를 스토리텔링화해 지난해 9월 국화에 전시됐던 작품들을 역사박물관에, 전자현미경으로 본 다양한 곤충의 세계 작품을 부안복합커뮤니티센터에 각각 순회 전시한다.

특히 순회 전시에서는 귀중한 나라의 선조들을 기억하는 교육과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곤충생태를 인문학적으로 접하면서 그 속에 깃든 역사적 가치를 발견하고 곤충의 아름다움을 향유해 지역 주민에게 깊은 감성과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 할 계획이다.

최정에 교육청소년과장은 "이번 순회 전시는 부안누에타운의 특별한 작품을 가까이서 감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근로자 · 시민, 함께 누리는 문화공간

정읍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바이오 진흥 · 창업 보육공간으로 발돋움

근로자에게는 여가와 운동 기업에게는 회의와 연구 공간을 제공하는 정읍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가 지역 내 정주환경 개선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시는 지난해 4월부터 신정동 첨단산업단지과 북면 제3일반산업단지 내에 각각 복합문화센터를 개관해 운영 중이다. 이들 센터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회의, 교육, 박람회 등 업무 지원은 물론, 근로자와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체육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일자리 환경과 정주 여건을 함께 조성하고 있다.

첨단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는 지상 3층, 2개동에 연면적 약 3100㎡ 규모로 헬스장과 다목적체육관 북카페, 동아리방 대강당 R&D지원센터 등 다양한 공간이 마련돼 있다. 제3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는 지상 2층, 1개동에 연면적 약 1600㎡ 규모로 탁구장, 당구장 독서공간, 회의실 편의시설 등 실생활에 밀접한 시설이 조성돼 있다.

시는 지난해 4분기부터 양 센터에서 헬스 요가, 에어로빅, 기타 탁구, 노래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2분기 기준 총 255명



이 회원으로 등록해 매일 센터를 이용 중이다. 더불어 개관 이후 1년 동안 연구가관, 기업체, 단체 등이 약 90건의 회의, 행사를 개최하며 시설을 활발히 활용해 복합문화센터가 정읍시의 실질적인 문화·업무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첨단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내에는 전북테크노파크 부설 정읍바이오진흥센터가 입주해 바이오 국가사업 발굴 산·학·연·관 연계 강화, 기술사업화 지원 등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더불어 센터 2층에는 개방형 공유오피스를 마련해 초기 창업기업에 법률, 회계, 컨설팅 등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단계별 바이오 기업 육성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청년주택, 입주 경쟁률 12대1... 청년층 관심집중

성산3길에 위치... 접근성 · 편의성 · 안전성 최대 장점

고창군의 청년매입임대주택(청년주택)이 추가 입주자 모집에서 12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지역청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1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공실4호에 대한 입주자 추가모집 결과, 약 12: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청년층의 높은 관심과 수요를 확인했다. 청년임대주택은 고창읍 성산3길에 위치한 다가구주택으로, 접근성과 편의성, 안전성이 최대 장점으로 꼽힌다.

특히 청년들의 주거 특성을 고려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생활 필수 가전이 기본적으로 구비되어 입주 즉시 생활이 가능하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시세 대비 50% 이하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가 책정되어 있어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임대 기간은 기본 2년이며,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2회(총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군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자산 기준을 검토한 후 5월 중 최종 입주 대상자를 발표할 계획이며, 선정된 입주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주할 수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청년 매입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수요에 따라 공급 확대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신규 공중보건의 8명 임용... 지역 의료공백 최소화 총력

정읍시가 신규 공중보건의 8명을 임용하며 지역의료 공백 최소화과 주민 건강증진 강화를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정읍시보건소는 지난 10일 신규 공중보건의 8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하고 복무에 필요한 기본교육을 진행했다. 새롭게 배치된 공중보건의는 의과 2명, 치과 3명, 한의과 3명으로 구성돼 14일부터 각 보건지소에서 본격적인 진료활동을 시작한다.

이번 배치로 정읍에는 총 20명의 공중보건의가 활동하게 됐지만, 전년 대비 3명 감소한 수치다. 특히 2022년부터 올해까지 11명이 줄어든 상황으로,



지역 의료 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시는 대체 인력 배치와 권역별 순회진료를 통해 의료공백 최소화에 집중하고 있다.

의약분업 지역인 신대안읍, 태인면, 칠보면, 입암면에는 내과 공중보건의

를 별도로 배치하지 않고 10개 보건지소에 우선 배치된 5명의 내과 공중보건의를 통해 주 2~3회 순회진료를 운영하고 있다. 또 고부보건지소에는 전국 최초로 시니어 의사 임경수 지소장을 배치해 의료 공백을 보완하며 지역 내 지속 가능한 진료 체계 마련에 힘쓰고 있다.

이날 교육에서는 무단이탈 방지, 진료 친절 의무 등 복무 관련 주의사항도 철저히 안내됐다. 시는 공중보건의들이 지역 주민과 신뢰를 쌓으며 책임감 있는 자세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완료

부안군, 행안면 제2농공단지 일원 1ha 규모 조성

부안군은 행안면 제2농공단지 인근에 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기후 대응 도시숲은 기후 위기에 대응해 도심 내 생활권과 주변 지역에 미세먼지 저감 도시열섬 및 폭염 완화, 탄소 저감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숲을 말한다.

지난 2년 동안 약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ha 규모로 조성된 기후 대응 도시숲에는 에메랄드그린 외 31종

8224주 꽃잔디 외 1종 4만 582본, 농공단지 주변길에 왕벚나무 119주를 식재했고 주민들의 편의한 이용을 위해 식재지를 따라 아자메트 산책로를 조성했다.

군은 탄소배출의 원인이 되는 농공단지 주변에 기후 대응 도시숲을 조성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해 공기질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농작물재해보험, 단호박 등 10개 품목 확대

민선 8기 심덕섭 고창군수의 대표 공약사업인 농작물 재해보험 군비지원 확대사업이 이 가입 품목을 대폭 늘렸다.

지난 11일 고창군에 따르면 농작물 재해보험에 신규 품목이 10개가 추가됐다. 단호박, 당근, 브로콜리, 양배추, 호두, 차, 생강, 참깨, 살구, 녹두이며, 이 중 단호박 품목의 가입은 5월 23일까지 지역농협에서 신청 가능하다.

고창군은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군비 32억5000만원을 편성, 농가 보험료의 90%까지 지원한다.

앞서 심덕섭 군수는 2022년 7월 취임 직후 "재해보험 군비 부담을 1년에 5%씩 높여 농가부담을 확 줄이겠다"고 약속했었다. 이에따라 농가부담은 2022년 20%에서, 2023년 15%, 작년과 올해는 10%까지 낮아졌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장마, 이상저온, 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과, 배, 단감(1월)을 시작으로 비닐하우스 등 원예시설(2월), 고추, 노지수박(4월), 복분자, 복숭아(12월) 등 80개 품목이 해당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노인 의료복지 확대 눈 · 무릎관절 지원

정읍시가 저소득층 노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돕기 위해 백내장, 녹내장 등의 눈 질환과 무릎관절 수술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시는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눈과 무릎관절 수술비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눈 의료비 지원은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눈물샘 등 안과적 수술(레이저 및 유리체강 내 주사 포함)이며 무릎관절 지원은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 기준에 부합하는 환자에게 제공된다.

다만 비급여 수술비 지원 대상 이전 발생 의료비, 통원진료비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어르신들은 수술 전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신청 시 수술 예정 병원의 진단서나 소견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의료비 지원 서류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눈 수술은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무릎관절 수술은 노인의료나눔재단에서 심사해 지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수술을 완료해야 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